

「2023년도 1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의견반영 결과

지역 (개최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서울지역 (3월30일)	<p>① ‘딜라이브 뉴스(보도 프로그램)’ : 취재보도 시 간접광고(광고효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에 대해 자체심의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국민의 알 권리’ 와 공공성, 공익성을 원칙으로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상에 블러 처리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다만 취재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영상을 노출하는 경우는 있음.</p> <p>② ‘자체제작 프로그램’ 홍보방안 : 회사 이미지 제고와 시청률 상승을 위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과 방안은? - 지역채널만을 통한 콘텐츠 홍보의 한계성을 느끼고 2022년부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대폭 개선하였음. 특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MZ세대의 트렌드를 콘텐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p> <p>③ 지역채널과 유튜브 채널의 동시 운영으로 지역채널의 정체성 유지가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침과 대책은? - 과거보다 유튜브 채널의 운영이 활발하지만 TV시청률의 변화는 미미함. 원인은 TV시청자가 유튜브 채널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만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TV시청자가 재방송을 요청 시 시청자에게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오히려 자사 채널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p> <p>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 운영안 마련 제안 - 당사에서는 2022년부터 지역채널전략팀을 구성하고 TV시청률 및 유튜브 채널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p> <p>② 콘텐츠 제작 시, SNS에 적용할 수 있는 숏츠 제작포맷을 고려할 것. - 일부 콘텐츠는 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가급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음.</p> <p>③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 - 홈페이지, SNS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당사 견학 신청도 받는 등 다각적인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p>

지역 (개최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경기지역 (3월31일)	<p>① ‘공공성 콘텐츠’ 제작 제안 :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공·공익성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대한 의견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역 이벤트 등 각종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였음. 앞으로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공익적인 캠페인 등 공공 콘텐츠 기획과 제작 협업을 통해 지자체의 제작투자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음. <p>② ‘재난재해 방송’ 제작 제안 :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및 제작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재난재해 시 뉴스특보와 실시간 자막방송을 실시하며 지난 2022년도 호우 재난과 이태원 참사 뉴스특보를 집중 편성하는 등 주민에게 지속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③ ‘사회공헌사업’ 운영 방안 : 회사의 공익적인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데, 향후 운영 계획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공헌사업은 제작비, 인력 투입 등의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지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회사의 중점 목표로 인식하고 매년 시행하고 있음. 아울러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민 홍보도 여러 매체를 통해 펼치고 있음.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
	<p>①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구 등 소외계층을 위한 취업정보, 모금 이벤트 행사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매년 제작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Ai 영어 뉴스도 기획·제작하는 등 공익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p>② 다양한 지역명소를 소개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로드다큐동네방네엔’ 등을 통해 감춰진 지역명소와 먹거리 등을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있으며 참신한 소재를 계속 발굴해 제작할 계획임. <p>③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음.